

제주해녀의 물질기술과 민속지식

한림읍 한수리 흥경자, 장귀순 해녀 - 1

해녀: 흥경자(1950, 16세 육지 감포 물질로 시작)

장귀순(1935, 19세 울산 정제포 물질로 시작)

인터뷰 일자 : 2019. 08.

인터뷰 : 좌혜경(Q로 기록),

해녀 : 흥경자(A로 기록), 장귀순(B로 기록)

Q : 요즘은 뭐 물건들 잡는 거

B : 요즘은 다 갠허수게, 바당을

A : 저 금허기 해 가지고예. 예 칠월 팔월 구월. 근데 이제 구월 달부터는 소라 이제 금허기 가 끝나든 작업시작 허여. 헐 거

Q : 여기 바다 어장은 어디로부터 어디까지꽂?

A : 여기는 한수리는 수원하고, 한림항 끝까지가 한수리 어장이고, 주로 이제 비양도 공동 어장에 작업허레 다닙니다.

Q : 비양도 공동 어장은 여러 곳이 같이 하고 있지예

B : 예

A : 구(9)개리. 그러니까 한림읍 관내 구(9)개리. 귀덕1리, 2리만 떼져 가지고예. 수원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월령까지

Q : 음, 수원에서부터 월령까지. 귀덕일1리, 2리는 안 갈 거고

A : 예. 그냥 그디예 옛날 거 우리 할머니 시대덜, 어머니 시대덜 관행이 이 풍선타고 네¹⁾ 젓 으멍 거기 물지 허레 주로 미역이 많이 나니까 미역허레 다니다가 이제 어장이 육십(60) 년도에 이제 면허를 받으면서 한림 수협 조합장님 면허로 해가지고 거기 다녔던 마을만 하니깐 비양도까지 아홉(9)개 마을. 거난 귀덕1리, 2리는 안 다녀버리니깐 포함이 안 된 거주

Q : 아, 한림읍 지구에서

A : 예

Q : 음 여기 한수리 바다 어장에는 뭐가 주로 많이 남수과?

A : 우리는 뭐 보편적으로 제주도야 뭐 소라, 천초, 안 나는 거 엇이 나 나기는 하는데, 바당이 오십구점이(59.2) 헥탈(ha) 작다 보니까 물량이 적지, 나는 거는. 다 골고루 다 나예. 보말이고 뭐고, 있는 거는 다 있어. 근데 해조류도 옛날에는 춤뭍도 잘도 하영 잇어났어. 춤 모자반도예.

B : 바당은 죽아도 춤 많이 나나신디. 생복도 수원 바당보단 우리 한수리 바당이 더 많이 나고 헤신디 바당이 오염 뉘간예 전북도 이젠 자연산이 하나도 엇고,

A : 이제 비양도 땅에 가. 완전 모자반이고 감태고 어장이 풍성하고, 넓고, 완전 밖으로 나갈 수록 수심도 얕으곡, 그래서 이제 배타고 비양도 땅에 주로 가사 허고, 주로 우리 주선 어장은 이제 그 뭐냐 물건이 이제 주로 없는 편

Q : 게 어촌계장님은 죽 그 새 시적으로 일월달부터 작업한 거 대강 아시겠네

1) 네 : 노

A : 예

Q : 한번 얘기 좀 해보십서

A : 일월달에 그 뭐 잡는 거?

Q : 응. 일월달부터 해가지고

A : 일월달은 주로 소라 많이 잡고, 그 다음은 저 이월달에는 소라

B : 해삼

A : 해삼

Q : 해삼?

A : 음, 해삼. 방류해서 놔두면은 해삼도에 많이 나와. 해삼 잡고, 또 이제 사월달 되면은

B : 성게허고

A : 오, 삼월 사월달부터는 이제 성게 작업

Q : 해조류는 몸이라든지

B : 그 거 없어

A : 해조류는예

B : 하나도 엇우다. 그런 거

A : 해조류는

B : 메역이나 뽕이

A : 우리 한수리 어장에는 춤뭍이 엇고, 비양도 어장에 가면은 춤뭍허고 또 미역허고

B : 미역허고

A : 미역허고, 사월 오월달에는 춤뭍허고 미역 주룬데 그렇게 허고. 소라는 그 때 되면은 풀이 바다 속에 풀이 이렇게 저 많아 가지고예 다 숨어버려. 숨어버려 가지고예 잘 안 보이면은 그 달달이 철철이 나는 해산물을 주로 하는데, 이제 유월달은 저 오분자기, 성게 그렇게 하고, 칠월달에는 이제 금허기가 들어가니까 보말 보말

B : 보말 잡으면 끝

A : 예. 보말 그거 하루 이틀 그렇게 잡고

Q : 구월달부터 다시

A : 구월달부터는 이제 소라 금채기가 이제 산란기가 끝나니까 구월달부터 일월달까지는 주로 이제 소라. 그렇게 가. 유월달에는 저, 천초, 오월달에는 천초

B : 천추, 천추

Q : 천초도 좀 낚니까?

B : 예. 하영 낚니다

Q : 하영 나?

A, A : 예.

B : 하영 험니다

A : 천초는 그런대로 우리 한림 수협 관내는 한 세(3)번째 쯤 될거라

B : 많이 해와

A : 비양도도 가서 해 오고, 우리 어장에서도 해 오고

Q : 천초를

A : 예

Q : 천초는 남자 어른들 도와줍지양?

A : 예. 품 쥘 그냥 웃트로 영 왕 덩겨줘

B : 조락에 영 담양 오는데 텡겨당 차에 쇠어당 장수
Q : 삼춘은 경 막 깊은 물에는
B : 장수촌디서 널멍
A : 우리 이 한수리에서 제일 고통.
B : ㅎㅎㅎ
A : 예. 고통 잠수고예. 비양도 가면은 문어 우리보다 더 많이 잡아와. 가에서. 그 문어 잡는
그 기술이 별도로
Q : 있어
A : 예. 삼춘한테 있어
Q : 예. 삼춘은 어디 문어 어디 문어 강 잡아 왔수과?
B : 비양도 가든 그냥 그 앞에 섬에 그 비양도 섬에 바레 영 놀멍 놀멍 텡기멍 보든 심영 잡
아 왔주게.
A : 자갈, 자갈밭이[자갈바티]
B : 이만이
Q : 자갈밭에. 그디 문어 잇이는 구멍이 있구나
A : 다 알아
B : 사는 구멍이 있어요. 텡기는, 큰 게 텡기는 줄 있고, 이것이 여가 바구가, 돌바구가 이렇
게 이렇게 실 거 아니꽈?. 게든 좀 잔 거 사는 디도 있고, 좀 사름 곱으든 큰사름만 사는
사람도 있고, 허허. 그런 다 그런 것이 있어요
A : 문어 잡는
Q : 몇 키로까지 잡아 붓디과?
A : 문어? 십, 십오키로? 십오키로, 십키로, 이십 몇키로도 잡았저. 혼자만. 그 험재 금릉에
나이 드신 분 문어 잡는 할머니들 들어가버리니깐 이제 우리 삼춘만 다니는디예 가든 비
양도 섬 반쪽은 다 돌주게. 자갈에서. 자갈밭디서
Q : 헤엄치면서예
B : 예. 테왁 짚영 텡기멍게. 텡기멍. 갓으로 살살살살 텡기멍
Q : 잘하셔수다. 지금도 많이 잡으큰게예
A : 예. 이제 비양도 이제 구월 일일 해경허면은 갈려고 다 준비헸 놔뒀주
B : 게난 가질디 말지도 모르고 허허허.
A : 문어예, 쟈 많이 잡읍니다. 우리 보단 돈 더 벌어. 문어 깎이 이만, 키로(kg)에 이만
(20,000)원인난게
Q : 맞수다게. 그 문어는
A : 그 기술이라
Q : 구멍에 들어 잇입니까, 구멍에? 거든 호멍이 헤 가지고
B : 예. 호멍이로 영 행, 영 훈디서, 요런디서 호멍이로
A : 문어 잡는 호멍이도 길고, 커. 소라 잡을 때 가정 다니는 호멍이 흐고 틀려 가지고
Q : 틀려이.
A : 문어 잇는 자리에는 저, 물끄러코 풀영 놔두잖아, 몸에. 우리는 그냥 지나가는데
Q : 거 무슨 말인고
A : 이 코 풀영 놔둔다는 게
B : 사름 곱으면 코 는덜는덜 헸 것이 몸에

A : 끈적끈적 헨 그

B : 헤영 헨 것이 있는디 모르는 사름은 모르는다, 우리는 알아져

Q : 아

A : 문어가 이렇게 다녀나쁜 끈적끈적 헨 액체가 코자반에 막 붙어 있어. 솜털 달려 있는 거? 추룩. 경허쁜 그 근방에 할망 막 좇아근에 뵈려보문

B : 문어가 그런 거 안 붙어도 문어가 이렇게 덩기멍 그 바우가 있을락 허쁜 그 덩기는 어떻 이상헌 거가 십니다.

A : 조개 껍질도 있고

B : 문어 덩겨난 질이들이어

A : 게 껍질도 있고,

Q : 문어를 잘 잡으섬구나게. 문어 잡는 방법, 어촌 계장님한테 허꿈 ㄱ르켜 줍서

B : 잘 심어. 이디도

A : 다신 나신디 할망 물려주켄 헨 돌도 굴아죄신디, 엇어, 엇어.

Q : 자꾸 잊어불영, 흐흐

A : 잊어불어

Q : 아, 문어. 문어는 거쁜 그게 알인가, 그 희뚜룩헌 게.

A : 알이 아니고 끈적끈적헌 분비물

B : 알, 아니우다게.

A : 그게

B : 알은, 알은 막 이런, 영, 영 허연 영덕 소곱으로 들어강 다 붙영 놔뵈. 건 심지 안 헉니다, 난. 심으민 심이 하나도 엇영. 그 막 새끼 나멍 막 못 먹영 그거 막 헤나부난, 나 영 물 물문어 ㄱ치게. 물문어 갈애가지고 껍주기 이런 것이 막 느랏느랏, 허연 못 먹어

A : 문어가예.

B : 그런 거 안 심읍니다.

Q : 알 나분 거는

B : 예 예. 알 싸쁜 끈나분 거

A : 그, 뭐냐. 고기, 고기가 우리 나라에 저 뭐 찾아 오는 거 있지 안허우짱? 알 싸레 오는 거. 거 뭐?

Q : 우리 나라예

A : 어

B : 거 뵈이라

A : 다시 꺼꾸로 올라 왕 알 싸 뵈 죽어부는 거

Q : 연어?

A : 연어 연어. 연어가, 연어같이 알 쌀려면은예 으, 유월, 칠월, 팔월달에, 자기 집을 막 큰 영덕이라. 그냥 막 이렇게 다니는 데가 아니고, 영덕 허면은 여기 게 껍질도 있고, 조개 껍질도 있고 헌디 보면은예, 천장에 알 싸가지고예, 주렁주렁 주렁주렁 있어, 하얗게예. 하얗게 있으면은 요렇게 봐가지고 알 푸는 문어면은예

B : 심지 안 허근에

A : 안 잡아. 안 잡으는디예.

B : 잡아와도 먹지도 못 해

Q : 죽는 건가, 그러면

A : 그니까 그 자리에서 날 싸튀에. 알이 부활 할 때까지 아무것도 안 먹고 행에, 거기서

B : 힘이 없어

A : 죽어. 죽는데 어떻 허다가 잡아서 보면은 나와 있는 거 죽어가는 거 잡아서 보면은예. 껍질만 있어. 다 흐랑흐랑 헤가지고예. 게난 그 문어가 그 주렁주렁 그 꽃같이 매달린 그 천정에 그 돌 밑에 있는 것이, 매달려 있는 것이, 다 알로 부활할 때까지 문어가 거기서 지켜영 허니까 안 먹영, 그 연어하고 꼭 같은 거, 알 싸튀 어디 가부는 게 아니고, 그거 부활할 때까지 그 돌 밑에서

Q : 지켜

A : 지켜

B : 문어도예 그 알 싸젠허문 사름 곱으민 이런 집?치 이레 막 멘들어가지고예 안에 썩 들어 강예, 이런 자갈 같은 거 막 큰 거

A : 막 큰 게

B : 딱 고양이 막아, 집 안에 들어강 막아. 요만 헌 고양이 특 막앙 놉니다. 경 행 눈 하나만 봐져. 영 행 하나만

Q : 아, 기파?

B : 예

Q : 거 몇 월쯤에 경 험니까?

B : 건 아무 때라도 경 험니다.

Q : 아무 때라도

B : 예, 아무 때라도 알 싸

Q : 알 낳는 것도 낳는 시기가 있지 안 헤?

A : 알 낳는 게예. 사월, 사월달부터 경 험거라. 사월달부터

B : 요멘헌 것도 알 싸. 요만헌 거도

A : 사월달부터 주로 문어는 그 집 짓영 들어가면은예. 문어 집 짓영 들어가면은예, 그 앞이 막 조막만씩 헌 조약돌 자갈

B : 탁 집을 쌍 막아

A : 막 입구 다 막앙 험끔만. 자기 눈만 보일 정도로

B : 눈 하나만 베롱허여. 허허허

A : 게, 그거를 딱 보면 '아, 알 싸러 들어간 문어로구나' 행 봐긴에 저 안 건드리주게

Q : 경 허여근에 그 알 싸가지고 그게 부화 되는 건 언제쯤

A : 부화되는 것이 그 거의 한 이십일 경 그 정도 되는 거 닳아. 거문 냉중에 그 문어 있어난 디예 가보면은 자갈이랑 막 헤난디 가보면은 엉덕만 둥그렁허게 파정 있어. 게난 알 싸는 디도예, 가예 왕 싸, 가예. 깊은 바다속 깊은 데가 아니고 가예

Q : 경허문 그 문어 새끼들이 알에서 깨어 나는 건가

A : 예. 알에서 깨 나는 거. 깨 나는 거는 못 봐신디, 깨 나근에 요만큼씩 헌 거예

B : 알랑 알랑 알랑 알랑 알랑

A : 쫓작 쫓작 막 얼룩 얼룩 얼룩 허영 예빠. 막 예빠, 색갈도. 경헌 거 저

B : 물고기도 다 먹고

A : 툃웃우티, 툃웃우티예 쫓작쫓작 안 형 잇이문 뭐 저 고기 같은 거 와근에 폭 물영 먹어볼고

B : 경허당 살아나주게

Q : 경허영 살아난 게 문어들이다예
A : 이제 팔월달 되면은 지금 요만씩 해. 하나에 한 이백그램(200g)정도
Q : 그 정도로 자라가지고
A : 거난 거의 유월달에, 거의 산란하는 거 닮아. 동식물덜이 그 어장에
Q : 경 해가지고, 좀 자라면은 아기 되는구나
A : 전복도 유월달 그런 때 산란 할 때, 전복은 유월달 안에 십일월달인가 시월에 겨울에 허는디예, 돌 위에 전복이 이렇게 딱 붙어 있어. 딱 붙어 잇이믄예, 요게 꺾데기가 뽕뽕 돌아. 살 붙어 있고, 꺾질이 뽕뽕 돌고예 그 구멍 네개 나온딜로 연기 나오듯이 하얀 물 폭 폭 내쳐.
B : 그 것이 산란 때여
A : 분수, 분수 뿜어내듯이예. 거난 그게 전복 산란할 때
Q : 암컷이, 암컷이예?거문 수컷 역할은 아무것도 없네
A : 그거는 몰르고, 수컷이영 뭐 어떻게, 아, 수컷도 알 싸고, 저 암컷도 알 싸고, 그게 저,
Q : 그래서 합쳐지는 거?
A : 바닷물 속에서 이렇게
Q : 합쳐져가지고
A : 자기네끼리 만나가지고 돌에 가서 붙으면 되, 그거는 되는 거고, 고기 같은 거 먹어불면은 안 되는 거고
Q : 참, 거문 그 패류인 경우는 그 알 합쳐져가지고 꺾데기까지 만들어지는게이
A : 예
Q : 참 희안해예. 그 소라인 경우도 마찬가지로
B : 마찬가지로, 전복도 마찬가지로
Q : 꺾데기까지 만들어지는 게
A : 예. 게난 그게 거의 보면은 이 가에 물도 따뜻하고, 해조류가 많은 데 와가지고예 산란합니다. 소라도 그렇고, 우리 소라도 뭐 소라 두 개가 이렇게 뭐 엮어가지고 뭐, 그 뭐 교미를 한다거나 뭐 문어가 경 한다거나 요런 거는
B : 그런 거는 못보고, 못 봐
A : 이제까지 물질해도 하나도 못 봤고, 그냥
Q : 아주 점잖허게이 아무데나 앉고
A : 그냥 보말만큼 요만큼씩헌 소라가 구멍에 있어예. 잇영 허면은 그게 차차차차 크면은 바깥으로 나가근에 이제 잡는디 그런 거 밖에 없어. 전복도
Q : 그 저 저기, 유월 조코고리 보레 나온덴 허는 말 잇잖아예.
A : 멍말꽃
B : 멍말
A : 메밀꽃
B : 멍말 갈 때 멍말꽃 보젠 나온덴 웃밧디 막 소라덜이 올라온덴
A : 알 쌀려고, 알 쌀려고
Q : 알 쌀려고 허민, 그게 유월 될 거파? 몇월 될 거파?
A : 유월, 칠월인가?
B : 칠월쯤 뉘믄 멍말 갈지 안혀?
A : 응, 유월 칠월. 지금 한창. 지금 한창 우에 지금예

B : 막 올라와수다게
A : 물 싸든 그냥 잡을 수 있는 그런 디 구쟁기 다 올라 완 잇어.
Q : 알을 나서 올라왓구나게
A : 예. 계난 그계 저 커가면은 물 차갑고, 커가면은
B : 또 밑으로 내려가고
A : 밑으로 싹 내려가고. 막 소라도 빨라, 바다에서 도망치는 거
Q : 거믄 가네가 몇 년 정도 되어서 잡을 철이꽈?
A : 가네 한
Q : 한 삼년 된 건가?
A : 올 리 새끼 깨운 거 우리 존 거 잡아당 들이청 놔두믄, 크는 거 보믄
B : 재개 커
A : 흥 일년, 일년
B : 이년만 뉘믄 막 이만씩 험직허여
Q : 아, 이년 뒤에
A : 어 이년 되믄 칠센치 이상 될 거 닻고예. 일년 되면은
Q : 아, 경 작은
A : 한 삼, 사센치정도. 계난 그거는 조쿠쟁기. 이 조쿠쟁기가 여름에 저
B : 쟈쟈한 거. 이추룩한 거
A : 이제 이제 시월달 되면은
B : 잡아당 들이치고
A : 이만큼 험 것이 십이월달 일월달 되면은예 큰 것이 되어. 계난 칠센치 이상 되어가면은
일년에서 일년반 정도
Q : 일년반 정도
A : 예
Q : 거믄 그 가네 잡젠 허믄 여를 돌아다념수과?
B : 예. 여를 여레
Q : 여로?
A : 바당예, 여도양
Q : 어디 구쟁기덜이 하?
B : 요 꼭데기도 싹고, 이런 이런 굴렁에도 싹고게
A : 하영든 저
B : 이런 돌맹이덜 신디가 싹고게
A : 먹이가 많은 데, 많은 데가 있고예
B : 구제기도
A : 저, 무신것고, 여도 펜펜헤영 이렇게 구멍 가랑챙이 있곡 그런 데가 있지예, 이렇게 민짱
헌 디는예
B : 잘 엇어
A : 옛날에는
B : 감태 실 때
A : 감태가 막 난 때는 감태에도
B : 감태에도 돌아져났주게

A : 감태 밑에 뿌리에도 붙엉 있고
B : 막 늪엉 이런 것도 감태에도 붙엉 잇어나신디
A : 그런 감태가 엇어 버리니깐예 그런 데는 엇어
B : 여에, 여에
A : 여름 나가면은 감태, 저 소라가예 물이 뜨거우니까 돌 밑으로 다 숨고, 지금 시월달 되면
우에 다 올라올 거. 시월달 되면
Q : 올라왔다 몇월 달 되면 내려 갈 거라?
A : 몇월 달 되가믄, 한 삼사월 되가면은예,
B : 삼사월 뉘가면은 엇입니다
A : 육지, 육지 땅에 봄 나긴에예. 허면은 바다에도예 봄이 되어가지고 그게 돌맹이 색깔하고,
소라 색깔하고
B : 같아
A : 같아붙어, 색깔이.
B : 자세히 붓 봐
A : 변해가지고예. 경허면은
B : 안 잡아 가
A : 우에 소라가 잇어도 구분을 못 허여
B : 새 풀 나가믄게
Q : 거믄 아니지만 못 잡아구나
A : 응 새 풀 나민
B : 새 풀 나가가민
Q : 삼월달 되가믄
A : 예, 새풀 나가믄, 이 시월달 십일월달은예 이 태풍 왕 여름에 저 파도 쳐불곡 허믄 깨끗
허믄 여가 잡풀이 없으니깐예 소라 색깔하고, 그 암반 색깔하고,
Q : 같아붙고
A : 틀리리깐예 소라가 쭈작쭈작 쭈작 잇는 거
Q : 보이고
A : 보영 잘 잡아지는데, 봄 되어 가면은 삼사월 되가면은 미역도 날려고 바다에 이제 변허고
경 헤가믄 소라도 그 색깔로 변해붙어. 자연에 그 바다 속 자연에 맞추면서 이 해조류도
예, 소라같은 거랑 경 맞추멍 사는 거 닳아
Q : 여기는 소라, 작년에 작업 물량이 어느 정도 됩수과?
A : 작년에, 우리가 한 칠천
Q : 칠천 톤, 칠천톤이지?
A : 칠천키로
Q : 칠천키로?
A : 우리 잡아 온 거, 잡아 낸 것이 칠천키로
Q : 칠천키로예. 해녀 몇 분 되섬수과?
A : 해녀
B : 해녀 몇 분 안 됩니다. 바당이 죽아부난
A : 스물한사람
Q : 스물한사람 허면 한사람이 삼백오십키(350kg)로, 삼백오십키(350kg)로면 음, 석달동안 잡

을거나, 이. 거문 삼백오십키(350kg)로 석돌(3달) 허문 한달에 한 멧 일씩 가지, 한 열흘?

A : 한달에 겨울에는 열흘 작업 못허여. 삼일 허문 그자, 삼일 허는 날도 있고예. 일주일 헐 때도 있고예. 이제 시월 십일월달은 많이 허는데, 일월달, 이월달은예

Q : 칠천톤(7000)이면은 한 사람이 삼백오십키로(350kg) 톤이 아니고, 키로니까 삼백오십키 로니깐, 어 삼백오십키로를 석돌에 나누면 백키로씩 허고, 열흘, 한달에 열흘 헌다해도 삼백오십일이니까 열흘이면... 강 얼마, 몇키로씩 잡아야 될거파?

A : 처음 해경혈 때는예

B : 경허난 다, 다, 다 곁으진 안 허주게. 사람이

A : 삼, 사십키로 하는 사람 있고, 칠십키로 하는 사람 있고,

B : 예. 사름이 7르질 안 허주게

A : 뭐 오십키로 하는 사람 있고예. 또 한 이십키로 하는 사람 있고

B : 십키로도 헝 나는 사름 있고

A : 보편적으로 그렇게 허는디

Q : 삼십키로만 잡는덴 해도,

A : 예.

Q : 삼백 열흘, 혼 열 이틀

A : 거난 해경 해근에 한 이 삼일은

B : 우리 앞 바당은 넓지 안 험니다게

A : 비양도 가면은

B : 비양도 주로 가는 때문에

A : 주로 삼 사십키로씩 잡아 와예. 잡는 사람은 비양도 가는 사름은. 경헌디 또 소라 바당

Q : 삼십키로 허면 거문

B : 돈은 하지 안허여

A : 십오만원(15만원)

Q : 십오만원(15만원)예.

B : 돈은 하지 안허여

Q : 십오만원 좋은 거 아니?

A : 아니, 좋긴 험 건데, 돈 십오만원

Q : 작업 험거 비해서 많지 안지에

B : 돈은 하지 안 허. 키로수는 세어도 돈은, 돈 갓수는 하지 안 허니까

A : 게, 오천원이니깐예 십오만원도 많은데 그게 이제 남의 밭에 가서 일당으로 하면은 많은 거주예. 경헌디 그게예 계속

Q : 작업을 안 해가지고

A : 한 열흘이상 계속 작업을 허면은 그게 돈이 되는디, 이틀 갔다 왕 놀고, 하루 갔다 왕 놀고

B : 흥룬덜 가정 해녀가 보름만 물질 허면은 그 돈을 다 어떻 허여

Q : 맞수다

B : 다, 못 벌어. 너무 많헤. 멧 일 안 가도 돈 버는, 갓수는

Q : 게메. 여기 한수리 바당은 막 좋은 편인 거 닐아

B : 경헌디

A : 예. 비양도가 잇인 때문에 돈 벌엉 살아. 우리

B : 비양도가 있어부난 해녀덜 돈 벌영 왓주. 우리 앞바당에선 돈 얼마 못 법니다.

A : 미역도예. 비양도가 미역도 키로에 천원씩 헤가지고 한사람이 거의 천사백 오백 그 정도 벌어서

B : 경 벌었주. 올리? 추록 하영 벌진 안 허고

Q : 늘 미역 헤가지고예

B : 예

A : 키로에 천원씩, 막 식당 같은디, 또 청파래도 천키로 이천키로 저 받으레 오고예

Q : 우미는?

B : 성게도 올리? 추록 많이 난 때가 엇고

A : 우미는 키로에, 올리는 작년에 보단 천초깁이 저 고정적으로 삼년까지는 고정적으로 이제 만 천원 입찰을 했는데, 넘은해만큼 천초가 안 좋안에 해걸이 헤가지고, 건데 올해도 뭐, 열, 열 두개면은 하나에

Q : 삼십키로니까

A : 삼십키로씩, 열두마대 허면은

Q : 삼십만원

A : 어. 한 푸대에 삼십만원이니까

Q : 흔

A : 삼백

Q : 사백

A : 어, 사백

B : 얼마, 몇 일 안 행 경 해주게

A : 작년에는 나도 열 몇 개 허난 한 오백 얼마가 되었는데, 올해는 아홉개, 쟈 하영 헌 사람이 올해 열 두개. 게도 깁이 좋으니깐예, 여름에예

Q : 맞수다게

A : 그 그거 여름에 지금 이제 그 천초 행 푸난 지금 돈 나오니깐

B : 헤헤헤헤

A : 바당 갖혀불영 놀 때, 그게예 제법 그게

Q : 천초로예

A : 예. 천초로 행 용돈 쓰곡예. 여름에 그 막 풀 뒤어져근에 소라도 안 보이곡 헐 때는 미역 헤가지고예. 미역 헌 사람이 이백키로씩 막 허면은 돈 잘도 많아. 그추록 허영 허고. 성 게도 올해 깁이 성게도 일키로에 구만원씩 허니깐

Q : 일키로에 구만원씩 허난예. 그것도 한 보름

A : 보름 안 현. 성게가 제일 오래 작업했지, 올해?

B : 올해 하영 헛주

Q : 성게 올해 많읍디과?

A : 거의 백키로 이상, 백키로 이상

Q : 여기 성게 많이 남져예

A : 예

B : 하영 납니다. 비양도서 주로 허고, 우리 앞바당 아니 여문디 거 해당 컷당

Q : 백키로면 얼마니, 구십만원?

A : 거의 천만원치 벌었주

Q : 아니 구백만원. 천만원. 성계가
A : 이 팔십 난 할망도 성계 막 일키로씩 이키로씩 헤신디. 거난 성계 허면서 돌 일리면은 오 분제기도 나오른 떼곡, 문어도 잡고, 고동
Q : 해삼은 어떻 험수과?
A : 오동이, 잡동이, 해삼도 우리 초동에는 이만원씩 팔다가 냉중에 방류헌 것덜 다른 디서 헨 나오니까 만오천원,
Q : 여기는 방류 안 험수과?
A : 방류헌 거 일찍 잡안 풀앗주게, 우린
B : 일찍 잡안 풀아부난 엇어
Q : 해삼은 얼마만큼 헌 거 가져단 방류험수과?
B : 아이고, 요멘헌 거
A : 삼센치
Q : 그 삼센치짜리는 얼마만큼 키운 거지?
B : 얼마사 해, 요만이 허믄
A : 그게 이년은 키운 거
Q : 아, 삼센치짜리가.
A : 응, 이년
Q : 그러면은 몇 년 낱 잡을 건고예?
A : 삼센치 짜리가예. 어, 우리 바당에 왕 허면은 한 이년, 이년 키우면은예 한 백그람에서 백오십그람. 거 우리 주먹만씩, 게난 또 작은 거는 또 골라근에 바다에
B : 들이치곡
A : 들이치고
Q : 아, 이년을 여기 왕 더 키워야 될로구나
A : 예.
B : 거 바당에 놔근에
Q : 거 이년짜리 가져다근에 이년을 더 키워야 될건게
A : 예. 방류. 방류 허면은 딱 그 어장에 못 들어가게, 개인적으로 못 들어가게 우린 헤여. 전 복 방류한 디고예
Q : 이년동안?
A : 예. 이년동안. 거난 소라만 공동으로 거기 가근에 잡아당 소라만 공동으로 작업허영 풀앙 같이 공동으로 분배허고
Q : 거믄 해삼도 그때 공동으로 허영 한꺼번에 잡겠네
A : 예. 해삼도 그러면은 나올 때 잡게 되면은, 이제 작은 거는 안 잡고 큰 걸로만 잡앙. 경 헌디 해삼은예, 돌아나불어. 클수록 바깳더레 나가불어
Q : 아, 바깳더레마썸
A : 거난 방류헿 놔두믄 방류헌 자리에는 요렇게 잘잘헿 때는 돌도 뒤집영 보면은 막 요만씩 헌 크기는 막 잇이는데, 냉중에 클 때는 모래밭으로 썩썩
B : 엇입니다. 다 나가
Q : 아, 모래밭으로
A : 예. 경 해근에 저 개인으로 그디 해섬 주위에 수원도 들이치고, 우리도 들이치곡 허믄 가 운데 막 모래밭에 나왕 텡글엄시면은 이제

Q : 잡아오곡

A : 잡아오곡. 해삼은 쓰레기통 있는데 있어. 쓰레기통 있는데

Q : 게메 그렇다고 허드라고예.

A : 으, 쓰레기통 있는데

Q : 쓰레기 먹을게 있어서 그러지예

A : 예. 그냥 그 안게, 제주도 말로 허면은 우리 해녀덜이 안고망 안고망 현 것이 파도 쳐가
지고 감태든 모자반이든 무신 그런 게 싹 이렇게 밀려오는데

B : 어중간현 데, 지저분현 데게

A : 게난, 그 해삼이 발이 없어가지고 딱 붙으지도 못 허니깐

Q : 흥글쳐가지고

A : 파도에 흥글쳐가지고 그런 안고망에 들어 오는데, 그런 파도 치는 데는예, 물이 발에 발
갈아 논 거?치 고랑이 생겨 있어. 예, 모래밭에예. 그런 고랑에. 고랑에 이제 죽 죽 나왕
딩글멍 잇이면은 이제 그거 가근에 막 좇어 오고. 돌 구멍에 뭐 숨꼭 그런 거 없어. 겨울
나면 무조건 해삼은 나왕 딩글당 겨울 파도 쳐붙든 그냥 그 몹이영 뭐영 올리는 그런

Q : 경해도 가이 움직이지 안 험니까, 지대로?

A : 움직여

B : 무사, 움직입니다게

A : 움직여도 돌 밑에 안 들어가고, 겨울에는 바깥덜로만 다니당 보난 그런 파도에 막 딩글쳐
붙주게

Q : 막 늙은 것들도 있고예

A : 예

B : 예게. 큰 것도 있고게. 요만헌 것도 있고

A : 해삼예.

B : 눈으로 안 뵈여

A : 여기 한수리 그 방파제 가면은 칠백그램, 오백그램 이상 뵈가든 막 이만큼 헤예. 거든 질
겨. 맛이 없어. 막 커근에 헝 삼백그램예. 경 안 허든

B : 커신 커신 딱 맞쳐

A : 백오십그램 이백그램 해삼이 제일 맛있어.

B : 것이 맛있어

A : 부드럽고

B : 부드러와

Q : 게 저기, 토렘허든 경 해도 썬어

A : 아니, 그러니까 물 끓여가지고 토렘해근에

B : 토렘허든 안 썬니다게

A : 거니까 그런 큰 거는 배 딱 갈라서 보면은 내장,

Q : 미

A : 그게, 그게 맛있주

Q : 맛있어? 미가

A : 작은 거에는예

B : 내장이 작고게

A : 작고

Q : 경헌데 날 채로 팔아버리니까 거 미를 뭐 헐 수 잇우과? 옛날에는 어떻 헤나수과?

A : 옛날에는 여기 상인덜이 사다가예. 자기네 집에 가근에 배 따가지고 삶고, 소금 간 헛다가 풀 땀 배 따근에 그 내장을 끄집어 내가지고 그거를 행 동문통 시장에서 경 행 팔고, 그렇게 헤신디, 이제는 전량 막 식당 가던지예, 그냥 왕 사가곡.

Q : 아, 옛날은 소금에 다시 소금을 허여, 해삼에?

A : 예. 삶양 그 소금 해근에 그추룩

Q : 삶양 소금 간을 허여?

A : 소금 간. 거른 삶으믄 요만큼씩 헨 거 해근에

Q : 말리기도 허곡

A : 일본더레 막 그런데로 막 보내났주게

Q : 말리기도 허고?

A : 그거 지금예. 백오십그램 먹기 존 거 백그램 짜리는 삶으믄 요만큼씩 백이 안 허여

B : 삶을 필요 없어

A : 요만큼 백이 안 허고,

B : 옛날에야 경헛주

A : 삼백그램 이상 오백그램 된 이만큼 큰 질긴 거 그런 건 삶으믄 한 요, 요정도

Q : 경 행 그걸 말려? 소금에 절여?

A : 소금에 이제 묻었다근에 그 무신 거 행 가고

Q : 중국집 같은데서 쓰는 거지예

A : 예. 경 행 가고, 우리 저 육지서 성게 헐 때도 일본더레 가는 거 보니깐예. 소금에 버무련에 일본더레 나가

B : 야식해서, 야식해서. 토틀토틀허게. 안허믄 흐끔 흔닥허게예. 소금 야실 성게도 허믄 그곽에다 담으멍 흐끔 오실오실허게

A : 옛날에는 이 한림도에 그 일본 수출허는 사름 잇어나수다. 성게 받아다근에 곱성게 영, 영 헤영 세개씩 낱 요렇게 뒹게 행 툃툃 얹어. 경헤넨에 오십그램짜리 백그램짜리

B : 설탕담은 거, 소금도 막 설탕 담은 거 허영, 야식 우틸로 야식해서

A : 껍질로 사다근에 자기네덜 대로 까근에 그추룩 행 가고, 신창에서 그 영배 아저씨가 경 행 헤신디 지금은 안 헤여. 지금은 다 깡예.

B : 그런 거 보단 그냥 푸는 것이 낫으난게 그런 건 별로고게

Q : 그런 것도 없잖아. 풀 것도

B : 예게. 이제 깡 풀 것도 엇인디 그거 헐 수출 갈 것이 시냐?

A : 올해는 성게가 엇언.

B : 엇주

A : 저예. 물줄이가 틀려졌는가, 성게는 많이 잇인디 여물이 엇언. 게난 놔뒀다근에 조물게 조물게 더 얹건 조물게 허단 뵈려보난

Q : 다른 디 좋게 해볼엇덴 허멍

A : 다 알 싸불언

Q : 다른 디 좋게 헛덴 허멍

A : 예

Q : 알 싸불언예. 그다음에 해삼은 되고, 문어도 되고, 보말은 어떤 식으로 험수과, 요즘은?

A : 보말은 우리 동네는 일 년에 한 번씩 꼭 해경 행 잡아

Q : 아, 해경 행 잡습니까?
A : 예 해경 행 잡는 디, 수들이 보말예. 제주도.
Q : 수들이라도
A : 수들이 보말인디 그제 올해 키로에 오천오백원씩 헤영
B : 올린 오천오백원
A : 풀고예. 이 할망도 올린 보말 하난 삼십오기로 허연. 할망도. 우린 하영 헌 사름은 한 오십오기로, 오십기로, 뭐 이십오기로
Q : 그거는 까서 팔멘?
B : 엇우다. 그냥 놀채
Q : 날 채로
B : 나 몫, 엇영 못 풀아. 건 식당이
Q : 식당에서 그 사람도 까야 될거 아닌가
B : 삶양 지네가 깡
A : 아, 거 삶아근예예, 스키다시로 나가
B : 스키다시로 다 나감신가
A : 계난 보말 나는 디가 이 조무는 디가 우리 한림 수협 관내는 우리 동네뻬이 엇어.
Q : 어느 바당
A : 우리 이디 여기 여기 한수리 바당
Q : 으, 한수리 이 7에예
A : 예. 예. 뻬이 엇언 허난에 옹포서도 식당허는 디 바다이야기도 왕 풀아주렌 허난 거기도 백기로, 우리 한수리도 식당 세군데니깐예 훈군데서 오백키로씩 주문 들어 왕 사불주게. 거난 그 어른네는 삶아근에 스키다시로 나가
Q : 그 해산물 많이 나는, 예들 들면 구쟁기가 많이 나는 여라든지 이런 데 잇우과, 여기 한수리 바당 중에?
A : 예
B : 구쟁기도, 구쟁기도 가는 질이 있어. 가는 질 앵기는 사름은 하영 허곡, 올로 가분디 요디 든 사름은 얼마 못 허곡. 요로 들영 허허허허. 가는 사름은 앵긴 사름은 해경허곡, 하영 허고
A : 이렇게 둥그렁 헌 겨가 바다속에 잇어도예.
B : 다 싯질 안 허고
A : 왼쪽으로 소라가 많이 먹는 데가 있고, 오른쪽에는 하나도 없는 데가 있고,
B : 같은 여라도
A : 예. 건데 둥그렁 헌 여라도 여가 딱 보면은 감태도 있고, 뭐 미역도 조금 나 나곡, 영헌 여예는 그 저 영성 영성 영성 영성헌 이런 데는 소라가 숨어가지고 있고, 그냥 요쪽으로 는 펜펜헌 암반, 요런 데는
Q : 번쩍
A : 번쩍 엇고. 거난 여와하나에 세사름이 강 들어도 재수 좋안 오늘 하영 헛저 허는 사름은 소라 먹는 쪽에 든 사름이 하영허고
Q : 거 아는 사람이라
A : 계난
B : 재수가 엇어, 요디 들곡, 요디 식곡 허민

A : 여 좃앙 해경허영 가면은 그 먹어난 여에 가면은 이쪽으로 가야 소라가 있고 항상 없어.
이 엇어난 여에는. 거난 여를 좃앙 가도예, 빨라야 되어. 그 소라 먹어난 디를 좃앙 가야

Q : 맞아

A : 먹어난 디를 좃앙 가야. 경허난 영 보면은 그런 디 소라 같은 거, 물건 곱은 거 있는 지
형이 영 보면은예. 여가 영상 영상 영상 영상. 그런 돌 고망같은디 소라 새끼덜이 들어
강 거기서 켁, 숨어질 수 있는 그런 데가 주로 있고, 이렇게 펜펜헌 디는예, 엇어.

B : 뵈이던지

A : 경허고 영 파도치는 데

B : 뵈이던지 옛날만이 물건이 엇우게게

A : 막 파도쳐난 데가

B : 옛날만이 물건이 엇어

A : 수심 깊은 디 것이 웃터레 올라오고. 꼭 끝은 연디도 저쪽에 든 사름은 못 잡고, 이쪽에
든 사름은. 경허문 “야, 거기 있어” 허문 “엇어” 허문 손으로 영 영 영 영 허문 이제 신
호허문 와근에 행 잡고,

B : 옛날에는 무신거 허문 그냥

A : 문둥이 막 발로 뵈어나수게

B : 뵈어나곡, 옷 안 입영예. 우리 고무옷 엇인 때, 물질 배울 때, 헤 덩김은 어멍네 곱은 사
름은 상좁수 아니파? 우린 애덜 아니파 허문 히어가당 보문 전복이 이만씩 헌 것이 붙
어. “아오게, 전복 떼 줍서, 전복 떼 줍서” 막 경 허멍 해났주게. 경헌디 어떤 때 강보문
막 두개, 시개도 막 붙영 시어. “이디 붙어수다, 붙어수다” 허문 “어디고, 어디고” 허멍
“나아덜, 못 조무는 놈덜” 허멍 할망덜 경허멍 떼 줘나신디, 그런것이 엇입니다. 이젠. 흐
영가다보밍 영 영 허민 이룬디 텍 텍 붙영 시민 이만씩

Q : 옛날 생각허문 생각만 헤도 좋켜

A : 암전복, 마드렛 전복이엔 헤?

B : 마다리

A : 마다리 전복. 전복도게 시볼트 전복이어, 춤 참 전복이어.

B : 잘도 춤 전복 하나신게

A : 노랑 헌 떼영 노랑헌 거는

B : 그건 약 전복

A : 약 전복이엔 허고,

B : 암전복

A : 막 전복 하나 떼주렌 허영양, “삼춘 이디 전복 잇우다. 떼 줍서” 허문 떼어 주문양, 이거
전복이다 춤 탁 바깥 머리 삭 삭 찢어 가.

B : 이녁도 붙으렌

A : 자기도 이제 거 재수 좃앙 헤 주렌 그추룩 허멍

B : 경 헤나신디

Q : 경 허여근에 바로 줘볼고

B : 떼영 줘니다게. 줘, 할망, 어른덜이 우릴

A : 왕 떼문 춤 바깥 머리 쓸영 우리신디 막 허영 주고

B : 미창 잇일건디 우린 빗창도 엇고게 골갱이만 들영게 전복 싯저, 전복 싯저 허문게 부여난
게. 그 사름덜 지네가 강 혈 건디 우리고라 떼 도렌 헌 말

A : 전복도에 있는, 잇어난 디가 전복도 있고, 여 하나늘 가져도 잇어난 디가 있고,
B : 아이고, 옛날에는
A : 아이고, 그 숫전복이엔 현 거는이 살이 우에가 꺼멍헤. 그거는 말전복이엔 현 거는예, 돌
 밑에 돌 밑에 막 영 현 엉덕에 고기 사는 엉덕에 그런 디 잇어예. 경헨 그런 디 잇인디
 그런 거 떼지 못허믈예 돌을 이제양 막 불러. “삼춘 여기 전복 셔. 돌 일리게” 형 우리
 경헨지양. 서이 돌 일리리단양
B : 야이, 전복 하나 받 돌 일리리당
A : 이만한 거 전복 받양
B : 이제 곱으민 일렸주게, 그 돌을
A : “삼춘, 여기 전복 잇인디 못허크라” 경허난 또 이제 덕자엔 현 아이허고 서이라 완 일리
 난양
B : 큰돌인디 일단
A : 목 일런 내부난
B : 파삭 모산 모사전
A : 파삭 헤져라. 아이구. 경허연양 바당 소굽에서도양 재미나게 경 헨 작업허여. 경허고 7치
 게난예 다른 영 우티 7뜨민 자기 돈 벌 거 갈라주지 안 험니다. 그런 바다에는양 돌 하
 나 뵙 ‘여기 전복 있다. 전복 있저’ 허믈 저쪽으로 강 또 헨 사름이 뵙 ‘나도 여기 붙었
 저’, 허여근예예
B : 경 헤나신디 이젠
A : 경허영 떼곡 허영 해녀덜이 경허여신디 ‘난 여기 두개다이. 넌 거기 하나지’ 허멍 헨 돌
 아래서 경허멍 떼어신디
B : 이젠 엇어
A : 이젠 엇어